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강화

전북교육청, 2021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 채용·복무·처우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계약제교원의 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한 것으로 교육 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한편 기간제교사 채용 방법 및 절차, 채용 시 준수사항 등을 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임용 계약기간 중 채용

비리, 각종 비위사건과 관련해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채용기관장은 즉시 도교육청으로 보고 사유를 명시해 보고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해당 기간제교원에 대해 채용 제한 및 인력풀 등 재를 제한한다.

단, 채용비리와 관련해 임용계약이 해지됐던 사람,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됐던 사람도 채용

을 제한한다.

또한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제도를 지침에도 심는다.

동일학교에서 단절없이 6개월 이상(180일) 근무한 기간제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1회 분할 가능)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수와 관련해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인 실제근무기간 산정 시 임용관자(학교장)를 달리해도 전라북도 소속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채용비리, 아동학대나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계약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동아리 GDC(Gout De Ciel, '천상의 맛')는 경비·미화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직접 만든 빵을 전달했다.

경비·미화 선생님께 '감사의 빵'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동아리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동아리 GDC(Gout De Ciel, '천상의 맛')는 경비·미화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직접 만든 빵을 전달했다.

GDC는 요리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한식조리학과 전공 동아리다. GDC는 평소 캠퍼스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재학생을 위해 장학금까지 가까이 내놓은 경비·미화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이번 빵 나눔 행사를 기

획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상부과자, 단호박쨈머핀, 고구마쨈머핀, 쌀카스레라 등 70세트를 전달했다. 재료 구매부터 손질, 제빵, 포장까지 전 과정을 학생들 손으로 만들었다.

CDC 회장인 김희진 학생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건강하면서도 선생님들의 입맛에 맞는 빵을 전해드리게 됐다"며, "아침부터 깨끗하게 정리된 교정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얻는다 정말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국 공학페스티벌 경진대회 전북대 '끝까지가' 팀 우수상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4학년 김도원, 김정훈, 김형주, 강신엽, 허정현, 지도교수 임재혁)으로 구성된 '끝까지가' 팀이 전국 규모의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대회에는 매년 전국 공대에서 참여하는 2020 공학페스티벌(Festa 2020)의 주된 행사로, 전국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 수행 대학 및 협력대학 소속 학생이 제작한 우수 캡스톤디자인(창의적 공학설계) 작품을 선발하는 대회다.



'가림막' 설치되는 수험장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5일 여 앞둔 지난 27일 수험생 책상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국 87개 공과대학의 140개 팀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팀은 '코안다 효과를 이용한 창문 일체형 공기청정 및 순환 장치'라는 공학설계 작품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공기청정기 작동 시 미세먼지는 흡수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 들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문 일체형 공기 청정 및 순환 장치를 설계한 것이다.

코안다 효과와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소재 기업과 협업을 통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필터를 개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도원 학생(팀장)은 "공학도로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인정받아 감회가 새롭고 재 료를 다해준 팀원들 덕분에 수상할 수 있었다"며, "작품 제작과 대회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임재혁 교수님, 이일재 교수님 그리고 공학교육혁신센터에 감사드립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매년 우수 캡스톤디자인 팀을 선발, 창의적종합설계 경진대회에 출전을 지원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초기 창업자 안정적인 성장 돕는다

일반·실험실창업기업 사업 추가 선정... 7억9000만원 확보

전북대학교는 초기창업패키지 일반 분야와 실험실창업기업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6년 연속 정부 주요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지역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비롯해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이노폴리스캠퍼스 등 4개의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추가 선정까지 더해 초기 창업자부터 고급기술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창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일반분야 3억 5,000만원을 비롯해 실험실창업기업 4억 4,000만원 등 모두 7억9,000만원 지원금을 확보해 초기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초기창업과 고급기술 창업 당시 지원도 가능해 전문적인 창업지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이달부터 8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일반기업 최대 1억원, 실험실창업기업 최대 2억 원의 창

업 사업자금을 투입하고, 시장반응조사나 마케팅, 창업 공간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창업자원을 위해 최근 '초기창업패키지 소비자반응조사 사전캠프'를 진행했다.

이 캠프에서는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기업 8개 기업 대상으로 초기창업기업 제품의 시장반응조사를 통해 제품의 고객반응 및 시장동향 등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사전 멘토링 및 마케팅 전략 수립 강의 등이 진행돼 창업기업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은성 기자

도내 고교생 2명 '대한민국 인재상'

전북기계공고 강지훈·이리예고유다은 학생

전북지역 고교생 2명이 2020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인공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강지훈(사진 왼쪽), 이리여자고등학교 3학년 유다은 학생이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전국의 고등학생과 청년 우수인재들을 발굴해 격려·시상하는 2020 대한민국 인재상에 도내 2명의 학생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강지훈 학생은 기계분야 전문기술과 바른 직업관을 갖춘 실천하고 성장하는 영미아이스터로 목표와 열정을 통한 우수한 전공기술 및 학술행동, 교내외 활동,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 도전 요양병원과 도서관 및 해외에서 봉사하는 인재다.

특히 지난 2019년 KAIST 과학영재 교육 연구원 주관 미래융합 인재 양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네비조절뚜껑따개'의 실용



신안 1건을 등록했다.

전북기계공고 두승 교장은 "대한민국 인재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재상을 발굴하는 것"이라면서 "강지훈 학생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다은 학생은 자연관찰과 분석하는 능력이 남다르고 자연과학 탐구에 관심이 많아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및 연구해 소기의 성과를 이룬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정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